

보수도 등돌린 '5·18망언'...여야 4당, 3인방 제명 착수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퇴출 요구 빗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공동대응에 본격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4당 원내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맹비난하는 한편 이들을 즉각 출당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특히 4당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4당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규탄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18 폄해 발언을 한 의원들은 물론 한국당 지도부까지 힐난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해찬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망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 지도부 공개 사죄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명의 의원을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만이 5·18 정신과 5·18 영광과 희생자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윤리위 징계안 제소

로텐더홀서 공동규탄대회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소

김무성 "역사왜곡 금도 넘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도 거셴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의원 3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안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의에서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폄해한 것은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국회 윤리위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징계 이전에 한국당이 먼저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은 5·18 유공자로서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당사자로서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3인은 물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였지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모독 발언이 나온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하라고 한국당 소속인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그는 자당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요구에는 "다른 당은 우리 당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그는 자당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요구에는 "다른 당은 우리 당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도 입장에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가슴이 타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5·18 진상규명 또 늦어질 듯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위원 2명 임명 거부

"정확한 진상조사 위해선"

출범 늦더라도 인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함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의 정상적인 출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임명 거부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늦추거나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 출범이 또 다시 늦춰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5·18 진상규명법 제9조 1항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조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등을 고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조사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부칙을 두지 않은 것이 뼈아픈 지점이다.

이와 관련, 학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5·18 진상조사위도 꼭 9명의 위원이 선임

되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우선 운영하는 '개론발차'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지난해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진상조사위가 활동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100일을 훌쩍 넘긴 1월 14일야 조사위원을 늦장 추천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의 출범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임명 거부로 따른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조사위원 재추천 외면 등으로 진상조사위원의 출범이 또 다시 상당 기간 늦춰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이 더 늦춰지더라도 적절한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김경희 대변인은 이날 "위원회의 본격적인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청와대는 (임명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청와대가 판단한 이러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 (후보) 재추천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 앞두고

공장 조기 착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이달부터 추가투자자를 모집해 조기에 신설했던 법인 설립하고 자동차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이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의 1대 주주 대표자격으로, 오는 14일 현대차와 협의한 뒤 이후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시장은 "신설했던 광주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시민이 소유하고 참여하며 사랑하는 '시민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민선 7기 지난 7개월은 시의회의 도움 속에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며 궤도를 이탈한 광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킨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2019년 10대 핵심시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인 자동차공장 투자유치 협약의 성사시키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광주 발전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10대 핵심시책에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개선 ▲문화산업을 미래산업의 동력으로 육성 ▲군 공항 이전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달빛내륙철도, 경전선 전철화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권 수질개선 ▲도시재생 ▲자원봉사 선도도시 등이다.

또한 이 시장은 "역대 최대인 2조원을 투자해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가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 밝혔다.

이어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필요...한국당 반대편 불가능

5·18 망언 3인방 제명 가능할까

5·18 민주화운동 폄해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11일 여야 4당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현실과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징계에 나서더라도 제명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 관측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현역의원을 제소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제소가 이뤄지더라도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협조가 예상된다.

게다가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손혜원·서영호,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 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얽히고 설켜 모양새에서,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

이 크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리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윤리위 징계심사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중 첫 번째 단계인 윤리심사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개월 안에 심사를 확정해서 윤리위로 송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이다. 의

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만약 윤리심사위원회의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제명안'이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분포로는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석)의 3분의2이상인 199석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사상 처음이었다.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제명되는 등 지금까지 의원직 제명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행은 무안공항에서 시작하세요!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동남아		일본/대만		중국	
다낭 766,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 #4성급호텔 #투폰방투어 #후에전통터	세부 530,000원~ 세부5일 솔레아리조트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화,수,금,토 3박 5일 #해당+관광 출가기 #필리핀의 보물	코타키나발루 719,000원~ 코타 5일, 6일 시내 준특급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목요일 3박 5일 일요일 4박 6일 #아일랜트호텔 #반딧불투어	기타큐슈 59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금,일요일 2박4일 화요일 3박5일 #지옥온천 #캐슬시티	오사카 900,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 #1일자유	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자강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대형호텔 #베이징 #주자강 낚시터
방콕 657,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 #태국 맛집 #온라인 #다이내믹여행지	방콕/후아힌 941,000원~ 방콕/후아힌 5일, 6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 #태국왕실유전자문순례의 외안농장	나트랑/달랏 890,000원~ 나트랑/달랏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2월 18일, 22일, 26일 3박5일 #베트남 최고요양지 #구룡취의 정원	대만 650,000원~ 대만/지우펀/야후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 #먹거리, 볼거리가득	오미타 536,000원~ 오미타/유후인/벳부 3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화,목요일 2박 3일 토요일 3박 4일 #은전달림여행 #신규취향	상해/장가계 1,1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차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일여행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 있습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틸리티요금, 공항이용료, 전정보형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사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별도포함합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자지 등록번호 제26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요일 2일요일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친선/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금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금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의 다른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여행! ■여행 유의 사항) 여행 자체) 필수 권고) 여행 금지